

#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보 미<sup>1)</sup> · 김 한 나<sup>2)</sup> · 박 경 은<sup>3)</sup> · 최 영 진<sup>4)</sup>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진로준비도는 진로결정 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며, 초기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정규직 여부, 전공과 일의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과 통상최소사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편의 문제를 보정하고 엄밀한 효과 추정을 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도는 초기 노동시장에서 취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여부는 기본 회귀모형에서 업무만족도에 긍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경향점수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취업의 질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은 전공과 직업 일치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정규직 여부와 전공과 직업 일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기 진로준비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中等교육에서 실질적인 진로탐색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대학생 진로준비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초기 노동시장 성과, 경향점수매칭

## I. 서론

고용불안과 저성장의 경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취업난과 이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유빈, 최충, 2017; 함선유 외, 2021). 최

-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4)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휴학 및 졸업 유예 사유가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인턴십 등 현장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고학력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규 교육 외에 부가적인 교육·훈련과 경험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직전 단계인 대학에서의 진로준비가 중요하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 즉 진로의 방향을 스스로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훈련 또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생애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와 확립기에 걸쳐있어, 이후 안정적인 진로의 유지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Super, 1957). 이때 대학생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학생이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의 인적자본 축적에 힘쓸수록 노동시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Becker, 1975), 학생들이 설정한 진로목표에 따른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과업인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및 직업획득을 위한 준비행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로준비 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진로준비’에 대한 합의된 정의의 부재로 이러한 일련의 과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의 노동시장 효과성을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김나영, 우선영, 2022; 노경란 외, 2011; 박천수, 2018; 신혜숙 외, 2013; 윤정이, 2020; 윤지영, 임정연, 2020; 허균, 2016), 개인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서진영, 박재현, 2019; 이만기, 2011; 조윤서, 2018).

이러한 선행연구는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로준비행동의 노동시장 성과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진로발달과정의 측면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생애 진로발달상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로, 진로결정 수준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진로목표 획득을 위한 행동을 실행하게 되므로(황지영, 박재황, 2015), 진로결정은 진로준비행동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경우에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Sampson et al., 2000), 목표 성취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행동이 성공적인 취업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진로선택과정에는 대학생활 외에도 학생 및 가정배경 등 개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는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에 선택 편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도를 진로결정과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 참여 수준으로 정의하고, 진로선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편의를 제거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의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진로준비도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나, 주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발달과정으로 접근한다(Hartung et al., 2005; Super, 1957). 이 중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단계는 특정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는 자신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알아내고 노력하는 ‘탐색’ 단계와 직업의 목표를 정하고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구체화’하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전문화’ 단계로 이루어진다(Ginzberg, 1952).

이를 바탕으로 진로발달을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체계화한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단계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진로 및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 ‘탐색기(15-24세)’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여 선택한 직업을 확신하는 ‘확립기(25-44세)’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 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므로 생애 진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로 묘사된다.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유지기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과업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탐색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직업 탐색을 시도하고, 직업목표를 선택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다(Super, 1957). 즉,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진로 및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고, 직업획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요구된다.

개인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과 이를 탐색 혹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발달의 핵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봉환(1997)은 진로지도에 있어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행동적 측면의 두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광열(2019)은 실증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또한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로, 이를 독립적 혹은 인과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진로준비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경리, 2021; 서광열, 2019; 황지영, 박재황, 2015).

실제로 대학생의 진로준비도를 실증분석에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영(2018)은 진로준비도를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준비(전공 관련 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활동)로, 문찬주, 한지예(2023)는 진로결정 여부와 취업준비행동으로 구성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상의 진로발달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과업 핵심은 ‘진로선택’과 이를 위한 진로탐색 및 선택한 진로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포괄하는 ‘진로준비행동’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상호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이를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대학생의 진로준비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교육 과목 수강과 서비스 참여 수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2. 진로준비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진로준비가 대학생의 사회 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박혜선, 김봉환,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진로준비의 척도로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개인이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진로준비 및 취업준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먼저,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참여와 노동시장의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개별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윤정이, 2020; 윤지영, 임정연, 2020; 허균, 2016). 예를 들어, 윤지영, 임정연(2020)에 따르면 취업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취업확률과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턴십과 같은 직장프로그램,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학생은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일자리 만족도와 업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김나영, 우선영, 2022)와 프로그램 참여의 다양성(노경란 외 2011; 박천수, 2018), 프로그램 도움 정도에(노경란 외, 2011; 신혜숙 외, 2013) 따라 노동시장의 성과를 임금,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와 같은 다양한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학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진로준비 및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한 진로준비도 개념과 노동시장 성과를 연결 지은 연구도 있었다. 조운서(2018)는 진로준비행동을 학습자중심과 학교차원으로 나누어 취업 여부, 직장 만족, 업무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서진영, 박재현(2019)은 진로준비행동을 취업준비행동과 진로 탐색활동으로 나누어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만기(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취업준비전략’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전공교과과정 준비와 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전공 일치나, 정규직 고용, 직무 만족과 같은 노동시장의 질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 비해 개인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활동을 포함한 진로준비도에 주목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진로준비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진로준비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저자	데이터	관심변수	종속변수
대학 제공 진로·취업 프로그램 의 참여	김나영 외 (2022)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8)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 중 참여 여부)	업무도움정도 전공일치도 업무 만족도
	노경란 외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08)	취업 및 진로 개발 서비스 (참여의 다양성, 도움 정도)	취업 여부 고용형태 일자리만족도
	박천수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3)	진로교육 참여 개수 진로교육 도움 개수	정규직취업 임금
	신혜숙 외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09)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도움 여부)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윤정이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6)	진로 및 취업관련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sup>5)</sup>	임금
	윤지영 외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7)	진로 및 취업준비교육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sup>6)</sup>	객관적성과 주관적성과
	허균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3)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임금
진로준비	서진영 외 (2019)	서울소재 A대학 2018년 2월, 8월 졸업자 무선표집 설문조사	진로탐색행동 수준(5점 척도) 취업준비행동 수준(5점 척도)	취업여부 대기업정규직 일과 전공 일치도
	이만기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개인의 취업준비행동 <sup>7)</sup>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 전공교과과정준비 만족도	전공매치 직무만족
	조운서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6)	직업가치 학습자진로준비행동 참여여부 <sup>8)</sup> 학교진로준비행동 참여여부 <sup>9)</sup>	취업여부 직장만족

5) 진로취업교과목, 직장체험프로그램, 교내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캠프  
 6) 진로취업교과목, 직장체험프로그램, 교내취업박람회, 집단상담, 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캠프, 기업채용설명회  
 7)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취업 전 목표설정 후 정보탐색, 일자리 찾아본 경험  
 8) 직무적성공부, 외국어공부,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자격증 준비  
 9) 대회활동, 진로취업교과목 수강, 직업심리검사 실시, 교내취업박람회 참여, 개인 및 집단 상담, 면접(이력서) 교육, 기업채용설명회 참여

한편,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진로결정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지영, 박재황, 2015), 진로결정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광열, 2019) 등을 통해 진로결정 또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별 진로·취업 준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과 취업준비를 포괄하는 ‘진로준비행동’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대학 시기의 진로결정은 초기 노동시장 성과의 질, 더 나아가 개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준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로준비도에 대한 개념 고찰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준비도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선택 편의 가능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3. 이론적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도와 초기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본 이론과 선별가설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이론은 모두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교육의 기능을 다르게 바라본다(정영숙, 1996).

먼저,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박지성, 옥지호, 2022; 백일우, 2007; Schultz et al, 1971). 인적자본은 노동의 체화(박종명, 1999), 가치 창출의 역량(반가운 외, 2019)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이때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며, 높은 노동시장 성과를 위한 투자 과정으로 설명된다.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며 미래의 노동시장 성과를 위해 추가적인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이필남, 2019).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교육 및 서비스에 시간과 재화를 투자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는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추가적인 교육·훈련 참여가 적은 학생은 노동시장 성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선별가설이론은 인적자본이론과는 반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백일우, 2007). 고용시장에서 고용자들은 개인의 생산능력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관찰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사용하여 개인을 고용한다(Spence, 1973). 그래서 개인은 추가적인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보다 학력 신호를 형성하게 되고, 고용주는 이를 활용하여 유망한 근로자를 선별한다(박지성, 옥지호, 2022; 정영숙, 1996). 선별가설이론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교육 과목과 서비스에 참여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지만 학력 측면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이라

는 동일한 신호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로준비활동은 실제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자본이론 및 선별가설이론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도가 높은 경우에 인적자본 축적의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진로준비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초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선별가설이론에서는 학력에서 동일한 신호 수준을 획득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학력 외에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진로준비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을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 진로준비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틀

####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II; 이하 KEEP II)’ 자료 중 1~6차년도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KEEP II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동시장 안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종단 연구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고등학교 2학년 패널을 2028년까지 총 13년간 추적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EP II의 1~6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자, 3~6차년도 조사 당시 대학과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성인의 응답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노동시장 초기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및 4년제 이상 대학으로 설정한 것은 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은 교육과정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초점이 있어 진학 목적 및 교육과정이 일반계 고교 및 일반대학과 다르다는 점(정태화 외, 2009)과 대학유형에 따라 취업양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박경호 외, 2019; 윤수경, 한유경, 2014)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주목한 반면, 본 연구에서 대학 재학 중 노동시장에 진입한 학생도 포함한 것은 인적자본이론 측면에서 고용 경험이 인적자본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고용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박영범, 2013; 이시균, 양수경, 2012; 이정민, 김기승, 2019).

### 3. 분석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취업 성과 관련 변수로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일-전공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를 설정하였으며, 관심변수는 진로준비도와 관련된 진로결정 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과 서비스 경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개인 및 가구, 학교 특성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질적 취업성과	취업 여부	2022학년도 취업(1) 미취업(0)
		정규직 여부	2022학년도 정규직(1) 비정규직(0)
		일-전공 일치 수준	2022학년도 일과 전공 일치도 (5점 척도)
		업무 만족도	2022학년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관심 변수	진로 준비도	진로결정 여부	2020학년도 결정(1) 미결정(0)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2018-2021학년도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교육 과목(학점을 주는 정규 과목) 수강 합계 (최대 4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2018-2021학년도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학점과 관련 없는 강좌, 프로그램 및 상담 등) 경험 합계 (최대 10개)
개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계열/학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더미코딩	
	학업성취도	(2018-2021학년도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4.5	
	대학생활 만족도	2018-2021학년도 학교생활 관련 11문항의 평균	
가구 특성	자기이해	자기이해 관련 5문항의 평균 (5점 척도)	
	부모 학력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석사(18) 박사(21)	
학교 특성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부+모) 자연로그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종속변수 가운데 취업 여부는 2022학년도 3월 기준 일자리가 있는 경우 '1', 일자리가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취업자 중 정규직인 경우 '1', 비정규직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취업 성과 자료로 KEEP II 6차년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것은 대학생활 내 진로준비와 취업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경험이 축적된 이후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진로준비도에 해당하는 '진로결정 여부'의 경우 2020학년도 기준 미래 직업을 결정했다면 '1', 결정하지 못했다면 '0'으로 코딩하였고,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은 2018~2021학년도에 학교 내 진로 및 취·창업교육 4개 항목<sup>10)</sup>별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1', 미수강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4개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은 2018~2021학년도에 학교 내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10개 항목<sup>11)</sup>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여 10개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 학교특성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 시 통제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성별', '계열/학부', '학업성취도', '대학생활 만족도', '자기이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길혜지, 최윤미, 2014; 김현순, 2019; 서진영, 박재현, 2019;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부모 학력',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을(최정윤, 신혜숙, 2010), 학교특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소재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길혜지, 최윤미, 2014).

####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KEEP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진로준비도에 따른 학생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진로준비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의 하나인 진로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기술통계와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취업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취업 성과로서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 일-전공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이하 Logit)과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model, 이하 OLS)을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식(1)과 같다.

10)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진로/직업탐색 전공 과목, 진로/직업탐색 교양 과목, 취업준비 과목, 창업과목

11) 학교 내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경험여부, 진로/직업 멘토링 경험여부,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여부, 기업/채용정보제공 경험여부, 취업준비 프로그램 경험여부, 현장실습/인턴프로그램 경험여부, 잡페스티벌/박람회 경험여부, 취업관련 동아리 경험여부, 창업관련 동아리 경험여부

$$\text{식(1)} \quad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text{Career}_i + \beta_2 \text{St}_i + \beta_3 \text{Sch}_i + \epsilon_i$$

식(1)에서  $\ln\left[\frac{P_i}{1-P_i}\right]$ 는 학생  $i$ 의 취업 성과 중 취업 여부 및 정규직 여부에 대한 로짓이고,  $\beta_0$ 는 상수,  $\text{Career}_i$ 는 학생  $i$ 의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진로결정 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를 나타낸다. 또한  $\text{St}_i$ 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집합이고,  $\text{Sch}_i$ 는 학생의 대학 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epsilon_i$ 는 관찰되지 않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대학생 진로준비도가 초기 취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값인  $\beta_1$ 에 관심이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일-전공 일치 수준과 업무 만족도는 최소자승회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식(2)와 같다.

$$\text{식(2)} \quad y_i = \beta_0 + \beta_1 \text{Career}_i + \beta_2 \text{St}_i + \beta_3 \text{Sch}_i + \epsilon_i$$

식(2)에서  $y_i$ 는 학생  $i$ 의 취업 성과 중 일-전공 일치 수준과 업무 만족도를 나타내고,  $\beta_0$ 는 상수를 나타내며, 식(1)과 같이 설명변수로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와 학생 개인 및 가정 특성, 대학 관련 특성과 오차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준비도는 학생 개인 및 학교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선택 편 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김나영, 우선영, 2022). 즉, 진로준비도가 높은 학생들이 기존에 체계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진로준비도가 취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진로준비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Angrist & Pischke,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 편의를 해결하고 엄밀하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을 활용하였다.

경향점수매칭법은 관찰 가능한 특성인 공변인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이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인 경향점수를 구하고, 처치집단과 경향점수가 유사한 통제집단의 사례들을 매칭함으로써 집단 간 이질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Rosenbaum & Rubin, 1983).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도가 높은 학생들이 가진 내생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 중 ‘진로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진로준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인들에 대해 경향점수를 산출하고 kernel 매칭 방식을 활용하였다<sup>12)</sup>.

먼저 연구 대상이 처치집단에 포함될 경향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진로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다음 식(3), 식(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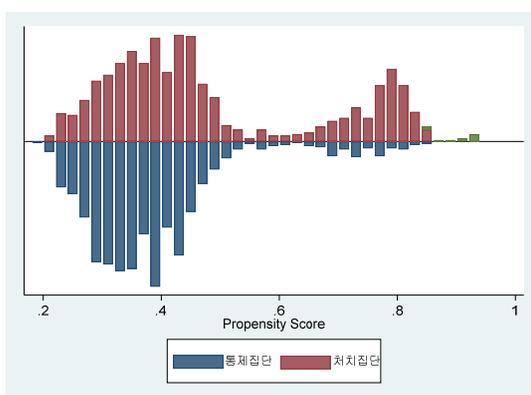
12)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이분 변수(영문)여야 하는 데/하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진로준비도는 세 가지 유형(진로결정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으로 이 중 진로결정여부만 이분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변수를 중심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였다.

$$\text{식(3)} \quad \text{Logit}(\Pr(T_i = 1)) = \ln\left(\frac{\Pr(T_i = 1)}{1 - \Pr(T_i = 1)}\right) = \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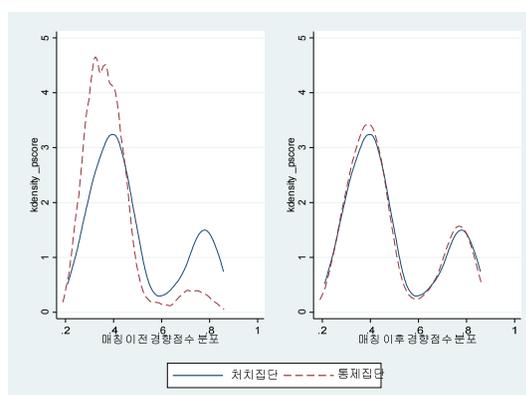
$$\text{식(4)} \quad P(X) = \Pr(T_i = 1|X) = \frac{e^{\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1 + e^{\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식(3)에서  $\text{Logit}(\Pr(T_i = 1))$ 은  $i$ 가 처치집단( $T_i = 1$ ), 0=통제집단, 즉 진로를 결정했을 확률의 로짓이며,  $\beta_0$ 은 상수항,  $\beta_1 \dots \beta_k$ 는 진로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변인(covariates)의 추정계수를 뜻한다(변수용 외, 2011). 이를 통해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인 경향점수(P(X))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향점수를 매칭하는 방식 중에서 kernel 매칭법을 활용하였다. kernel 매칭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차이에 반비례하는 값에 의해 가중치(weight)를 산출하고 통제집단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에 따라 처치집단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든 사례를 매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규, 2016). 경향점수매칭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변인들에 의해 산출한 경향점수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분포되어 있다는 공통 영역(common support) 가정을 확인했으며, 이에 집단 간 경향점수의 분포를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기존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이질적 차이가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의 두 집단 간 공변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향점수를 매칭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Logit 분석과 OLS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림 2] 경향점수 공통영역 분포 비교



[그림 3] 매칭 전후 경향점수 분포 비교



**〈표 3〉** 경향점수매칭 전후 처치-통제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진로 결정	진로 미결정	t	진로 결정	진로 미결정	t
성별 (남성=1)	0.397	0.485	-4.13***	0.402	0.399	0.14
출신지역 (소규모지역=1)	0.639	0.576	3.01***	0.637	0.637	-0.02
전공선택동기 (본인의 적성과 희망=1)	0.628	0.525	4.86***	0.625	0.632	-0.31
전공 만족도	3.905	3.744	4.73***	3.898	3.879	0.54
대학 만족도	3.706	3.642	2.72***	3.704	3.702	0.1
의약·교육 계열 여부 (의약/교육계열 전공=1)	0.264	0.062	13.77***	0.256	0.250	0.29
전공 공부 시간	9.778	8.029	4.39***	9.574	9.267	0.7
취업동아리 활동 여부 (경험=1)	0.035	0.014	3.18***	0.028	0.026	0.24

주: \* p<.1; \*\* p<.05; \*\*\* p<.01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총 2,182명이며, 이 가운데 2020년 기준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1,015명으로 약 46.5%를 차지하였고, 진로를 미결정한 학생은 1,328명으로 분석 사례 중 약 60.9%를 차지하였다.

**〈표 4〉** 기술통계 (진로결정 여부 기준 t검정 결과)

변수	전체		진로결정 여부			
			진로 결정		진로 미결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취업 여부 (취업=1)	2,182	0.307 (0.461)	931	0.362*** (0.481)	1,251	0.265 (0.442)
취업자 중 정규직 여부	624	0.402 (0.491)	322	0.484*** (0.501)	302	0.315 (0.465)
일-전공 일치 수준	625	3.306 (1.275)	322	3.556*** (1.275)	303	3.040 (1.223)
업무 만족도	625	3.624 (0.777)	322	3.686** (0.811)	303	3.558 (0.734)

변수	전체		진로결정 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2,182	1.313 (1.141)	931	1.436*** (1.159)	1,251	1.221 (1.119)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	2,182	2.399 (2.056)	931	2.684*** (2.073)	1,251	2.186 (2.018)
성별 (남성=1)	2,182	0.450 (0.498)	931	0.402 (0.491)	1,251	0.485*** (0.500)
인문계열/학부 (참조집단)	2,182	0.124 (0.330)	931	0.111 (0.314)	1,251	0.134* (0.341)
사회계열/학부	2,182	0.270 (0.444)	931	0.262 (0.440)	1,251	0.277 (0.447)
교육계열/학부	2,182	0.069 (0.253)	931	0.124*** (0.329)	1,251	0.028 (0.165)
공학계열/학부	2,182	0.265 (0.442)	931	0.199 (0.399)	1,251	0.315*** (0.465)
개인 특성	2,182	0.130 (0.336)	931	0.116 (0.320)	1,251	0.140 (0.347)
의약계열/학부	2,182	0.076 (0.264)	931	0.132*** (0.339)	1,251	0.034 (0.180)
예체능계열/학부	2,182	0.066 (0.248)	931	0.057 (0.232)	1,251	0.073 (0.260)
학업성취도	2,182	3.547 (0.465)	931	3.583*** (0.442)	1,251	3.520 (0.479)
대학생활 만족도	2,182	3.632 (0.427)	931	3.657** (0.427)	1,251	3.614 (0.427)
자기이해	2,182	3.709 (0.594)	931	3.791*** (0.577)	1,251	3.648 (0.599)
가구 특성	2,163	14.069 (2.113)	925	14.083 (2.075)	1,238	14.060 (2.142)
월평균 부모소득 (만원)	2,182	587.396 (328.397)	931	576.198 (289.432)	1,251	595.731 (354.511)
학교 특성	2,182	0.386 (0.487)	931	0.373 (0.484)	1,251	0.396 (0.489)
N	2,182		931		1,251	

\* 표시는 집단간 차이를 t-테스트한 결과이며, 계수가 더 높은 집단에 표시함.

주: \* p<.1; \*\* p<.05; \*\*\* p<.0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여부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결정하지 않은 집단 모두 미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진로를 결정한 집단의 취업자 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정규직 여부, 일-전공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 역시 진로를 결정한 집단이 미결정한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미결정한 학생에 비해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과 서비스 경험 수준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미결정한 집단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의 비율은 진로를 미결정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에 집단 간 기술통계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진로를 미결정한 집단에서 인문계열, 공학계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를 결정한 집단의 경우 교육계열, 의약계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직업 경로가 명확한 전공 분야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특성 중 대학 내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진로를 결정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김나영 외, 2022; 김영식, 최영진, 2022; 김정은, 오영교 2022),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학점을 관리하고, 대학생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이해 수준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집단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발달과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탐색’을 진로인식 및 결정에 선행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김지영, 2014; Super, 1957; Tolbert, 1983),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특성과 학교특성의 경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월평균 부모 소득의 자연로그 값은 진로를 결정한 집단에 비해 진로를 미결정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학생의 진로준비도에 따른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

### 가.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진로준비도는 진로결정 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각 유형별 효과를 <표 5>에서 세 개의 열로 제시하였으며, 각각 기본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t)의 결과와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 편의를 보정한 결과(PSM+Logit)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5〉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취업 여부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진로결정 여부	0.292*** (0.101)	0.415*** (0.120)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0.093** (0.042)	0.088* (0.051)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0.099*** (0.023)	0.090*** (0.028)
성별 (남성=1)	-0.751*** (0.108)	-0.786*** (0.127)	-0.727*** (0.109)	-0.744*** (0.128)	-0.684*** (0.110)	-0.703*** (0.130)
사회 계열/학부 (참조: 인문 계열/학부)	-0.188 (0.162)	-0.101 (0.176)	-0.186 (0.162)	-0.097 (0.176)	-0.201 (0.163)	-0.110 (0.176)
교육 계열/학부	0.282 (0.218)	0.150 (0.263)	0.403* (0.215)	0.179 (0.262)	0.406* (0.216)	0.188 (0.264)
공학 계열/학부	-0.481*** (0.175)	-0.428** (0.193)	-0.497*** (0.175)	-0.456** (0.193)	-0.510*** (0.176)	-0.469** (0.194)
자연 계열/학부	-0.127 (0.188)	-0.141 (0.207)	-0.135 (0.188)	-0.155 (0.204)	-0.165 (0.189)	-0.183 (0.205)
의약 계열/학부	0.365* (0.211)	0.467* (0.241)	0.462** (0.208)	0.447* (0.243)	0.419** (0.209)	0.420* (0.245)
예체능 계열/학부	0.256 (0.220)	0.398 (0.244)	0.257 (0.220)	0.371 (0.242)	0.258 (0.221)	0.362 (0.242)
학업성취도	-0.273** (0.114)	-0.169 (0.138)	-0.271** (0.114)	-0.156 (0.140)	-0.310*** (0.115)	-0.196 (0.141)
대학생활 만족도	-0.172 (0.123)	-0.149 (0.148)	-0.161 (0.124)	-0.149 (0.149)	-0.161 (0.124)	-0.150 (0.148)
자기이해	0.117 (0.087)	0.137 (0.108)	0.125 (0.087)	0.145 (0.110)	0.108 (0.087)	0.132 (0.110)
가구 특성						
부모 학력	-0.054** (0.025)	-0.056* (0.030)	-0.053** (0.024)	-0.056* (0.030)	-0.054** (0.025)	-0.054* (0.030)
로그 월평균 부모 소득	-0.032 (0.098)	-0.051 (0.120)	-0.036 (0.098)	-0.059 (0.122)	-0.033 (0.098)	-0.059 (0.122)
학교 특성						
대학 소재지 (수도권=1)	0.269*** (0.102)	0.209* (0.123)	0.279*** (0.102)	0.206* (0.123)	0.285*** (0.102)	0.216* (0.123)
cons	1.747 (1.531)	1.434 (1.843)	1.705 (1.528)	1.577 (1.855)	1.734 (1.531)	1.635 (1.862)
Pseudo R <sup>2</sup>	0.0547	0.0564	0.0534	0.0511	0.0582	0.0550
N	2,217	2,072	2,217	2,072	2,217	2,072

주: \* p<.1; \*\* p<.05; \*\*\* p<.01



먼저 Logit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가 모두 취업 여부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학교 2학년 시기에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진로 및 취·창업 과목을 많이 수강할수록,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도가 높은 집단이 가진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로 인과적인 해석이 어렵다. 이에 엄밀한 추정을 위해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집단 간 선택 편의를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추가 분석 결과에서도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가 모두 취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여부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학생의 경우에 취업할 확률이 기본모형보다 PSM을 활용한 모형에서 더 높았다. 반면에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의 효과는 기본모형보다 PSM을 활용한 모형에서 유의수준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 나.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의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 전공-직업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의 범주에 따라 기본모형의 결과(Logit 또는 OLS)와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 편의를 보정한 결과(PSM+Logit 또는 PSM+OLS)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진로준비도가 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6>에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가 모두 정규직 여부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진로준비도 중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수준에서 10퍼센트 유의수준에서 정규직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정규직 여부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진로결정 여부	0.271 (0.193)	0.324 (0.241)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0.023 (0.078)	0.024 (0.089)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0.035 (0.044)	0.099* (0.053)

변수	정규직 여부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Logit	PSM+ Logit
성별 (남성=1)	-0.473** (0.221)	-0.464* (0.247)	-0.453** (0.223)	-0.423* (0.253)	-0.429* (0.225)	-0.314 (0.259)
사회 계열/학부 (참조: 인문 계열/학부)	0.633* (0.333)	0.692* (0.360)	0.642* (0.333)	0.700* (0.359)	0.636* (0.333)	0.680* (0.358)
교육 계열/학부	1.291*** (0.401)	1.253*** (0.455)	1.415*** (0.393)	1.293*** (0.452)	1.427*** (0.393)	1.353*** (0.450)
공학 계열/학부	0.822** (0.363)	0.911** (0.394)	0.806** (0.362)	0.887** (0.391)	0.800** (0.363)	0.859** (0.392)
자연 계열/학부	0.659* (0.382)	0.924** (0.408)	0.637* (0.382)	0.873** (0.409)	0.621 (0.383)	0.810** (0.408)
의약 계열/학부	2.011*** (0.407)	1.938*** (0.470)	2.130*** (0.398)	1.972*** (0.467)	2.114*** (0.399)	1.945*** (0.461)
예체능 계열/학부	1.004** (0.410)	1.088** (0.449)	1.009** (0.409)	1.066** (0.444)	1.019** (0.409)	1.062** (0.443)
학업성취도	0.708*** (0.224)	0.881*** (0.268)	0.717*** (0.224)	0.892*** (0.268)	0.689*** (0.227)	0.818*** (0.271)
대학생활 만족도	0.062 (0.239)	-0.018 (0.267)	0.051 (0.238)	-0.042 (0.262)	0.040 (0.239)	-0.078 (0.264)
자기이해	0.283* (0.162)	0.330* (0.172)	0.297* (0.161)	0.339** (0.172)	0.292* (0.161)	0.322* (0.173)
가구 특성						
부모학력	-0.025 (0.047)	-0.041 (0.055)	-0.026 (0.047)	-0.043 (0.055)	-0.027 (0.047)	-0.044 (0.054)
로그 월평균 부모소득	0.191 (0.183)	0.059 (0.215)	0.186 (0.183)	0.058 (0.208)	0.179 (0.183)	0.035 (0.207)
학교 특성						
대학 소재지 (수도권=1)	-0.456** (0.193)	-0.528** (0.227)	-0.467** (0.193)	-0.550** (0.232)	-0.460** (0.193)	-0.513** (0.230)
cons	-7.570** (2.941)	-5.821* (3.504)	-7.425** (2.929)	-5.618* (3.348)	-7.225** (2.940)	-5.078 (3.333)
Pseudo R <sup>2</sup>	0.1143	0.1159	0.1121	0.1123	0.1127	0.1181
N	623	583	623	583	623	583

주: \* p<.1; \*\* p<.05; \*\*\* p<.01

다음으로 진로준비도가 전공-직업 일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기본모형인 OLS 결과에서 진로결정여부는 전공-직업 일치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에,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과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각각 유의수준 5%와 1%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향점수를 활용한 OLS 분석에서도 유지되었다. 즉, 진로 및 취·창업 과목을 많이 수강할수록,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전공과 일치한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전공-직업 일치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공-직업 일치 수준					
	OLS	PSM+ OLS	OLS	PSM+ OLS	OLS	PSM+ OLS
진로결정 여부	0.034 (0.098)	0.103 (0.117)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0.084** (0.039)	0.099** (0.043)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0.072*** (0.022)	0.091*** (0.027)
성별 (남성=1)	-0.333*** (0.109)	-0.314*** (0.118)	-0.291*** (0.111)	-0.263** (0.122)	-0.258** (0.111)	-0.200 (0.126)
사회 계열/학부 (참조: 인문 계열/학부)	0.526*** (0.152)	0.467*** (0.170)	0.516*** (0.152)	0.453*** (0.169)	0.504*** (0.151)	0.444*** (0.165)
교육 계열/학부	1.590*** (0.199)	1.520*** (0.202)	1.623*** (0.193)	1.561*** (0.191)	1.636*** (0.192)	1.587*** (0.186)
공학 계열/학부	0.610*** (0.168)	0.567*** (0.194)	0.600*** (0.168)	0.553*** (0.195)	0.589*** (0.167)	0.530*** (0.190)
자연 계열/학부	0.473*** (0.178)	0.435** (0.189)	0.452** (0.178)	0.395** (0.189)	0.422** (0.178)	0.356* (0.184)
의약 계열/학부	1.112*** (0.192)	1.051*** (0.225)	1.120*** (0.186)	1.054*** (0.218)	1.080*** (0.185)	1.013*** (0.218)
예체능 계열/학부	1.078*** (0.200)	1.059*** (0.212)	1.062*** (0.199)	1.032*** (0.211)	1.084*** (0.198)	1.042*** (0.206)
학업성취도	0.270*** (0.104)	0.289** (0.113)	0.266** (0.104)	0.296*** (0.113)	0.216** (0.105)	0.228** (0.113)
대학생활 만족도	0.551*** (0.119)	0.564*** (0.122)	0.556*** (0.119)	0.570*** (0.120)	0.533*** (0.118)	0.532*** (0.121)
자기이해	0.290*** (0.080)	0.284*** (0.088)	0.282*** (0.079)	0.265*** (0.087)	0.274*** (0.079)	0.261*** (0.086)
가구 특성						
부모 학력	0.023 (0.023)	0.008 (0.025)	0.026 (0.023)	0.011 (0.025)	0.024 (0.023)	0.009 (0.025)
로그 월평균 부모 소득	-0.041 (0.092)	0.014 (0.091)	-0.055 (0.092)	-0.003 (0.090)	-0.063 (0.091)	-0.012 (0.089)
학교 특성						
대학 소재지 (수도권=1)	-0.237** (0.097)	-0.202* (0.104)	-0.228** (0.096)	-0.194* (0.101)	-0.219** (0.096)	-0.170* (0.101)
cons	-0.915 (1.454)	-1.657 (1.408)	-0.842 (1.448)	-1.519 (1.395)	-0.486 (1.447)	-1.064 (1.384)
R <sup>2</sup>	0.268	0.278	0.273	0.285	0.280	0.296
N	624	584	624	584	624	584

주: \* p<.1; \*\* p<.05; \*\*\* p<.01

끝으로 진로준비도가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기본모형인 OLS 결과에서 진로결정 여부는 유의수준 5%에서 전공-직업 일치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은 부적인 관계를,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향점수를 활용한 OLS 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방향성은 유지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도는 업무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8> 대학생의 진로준비도가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업무 만족도						
	OLS	PSM+ OLS	OLS	PSM+ OLS	OLS	PSM+ OLS	
진로결정 여부	0.124** (0.063)	0.117 (0.073)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0.000 (0.025)	-0.008 (0.030)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0.012 (0.014)	0.015 (0.017)	
개인 특성	성별 (남성=1)	-0.037 (0.070)	-0.044 (0.073)	-0.035 (0.071)	-0.040 (0.074)	-0.023 (0.072)	-0.018 (0.077)
	사회 계열/학부 (참조: 인문 계열/학부)	-0.062 (0.097)	-0.055 (0.112)	-0.053 (0.097)	-0.045 (0.112)	-0.057 (0.097)	-0.051 (0.112)
	교육 계열/학부	0.062 (0.127)	0.079 (0.149)	0.121 (0.124)	0.094 (0.144)	0.126 (0.124)	0.105 (0.144)
	공학 계열/학부	-0.033 (0.107)	-0.021 (0.124)	-0.035 (0.108)	-0.023 (0.124)	-0.038 (0.108)	-0.030 (0.124)
	자연 계열/학부	-0.097 (0.114)	-0.097 (0.127)	-0.099 (0.114)	-0.103 (0.129)	-0.108 (0.115)	-0.117 (0.129)
	의약 계열/학부	-0.280** (0.123)	-0.273** (0.132)	-0.219* (0.119)	-0.253* (0.131)	-0.228* (0.120)	-0.263** (0.130)
	예체능 계열/학부	0.065 (0.128)	0.112 (0.139)	0.072 (0.128)	0.112 (0.140)	0.073 (0.128)	0.107 (0.139)
	학업성취도	-0.065 (0.066)	-0.133* (0.076)	-0.061 (0.067)	-0.129* (0.077)	-0.070 (0.067)	-0.140* (0.077)
	대학생활 만족도	0.401*** (0.076)	0.463*** (0.091)	0.396*** (0.076)	0.454*** (0.090)	0.394*** (0.076)	0.451*** (0.091)
	자기이해	0.299*** (0.051)	0.344*** (0.062)	0.306*** (0.051)	0.350*** (0.062)	0.303*** (0.051)	0.344*** (0.063)
가구 특성	부모 학력	-0.004 (0.015)	0.009 (0.018)	-0.004 (0.015)	0.008 (0.018)	-0.004 (0.015)	0.009 (0.018)
	로그 월평균 부모 소득	0.195*** (0.059)	0.171** (0.067)	0.194*** (0.059)	0.173*** (0.067)	0.190*** (0.059)	0.168** (0.067)
학교 특성	대학 소재지 (수도권=1)	-0.066 (0.062)	-0.083 (0.070)	-0.072 (0.062)	-0.094 (0.069)	-0.069 (0.062)	-0.086 (0.069)
	cons	-1.605* (0.927)	-1.577 (1.060)	-1.564* (0.930)	-1.526 (1.049)	-1.496 (0.933)	-1.430 (1.060)
	R <sup>2</sup>	0.170	0.202	0.165	0.197	0.166	0.198
	N	624	584	624	584	624	584

주: \* p<.1; \*\* p<.05; \*\*\* p<.01



## V. 결론

본 연구는 생애 진로발달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진로준비도는 진로결정 여부,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으로,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초기 노동시장 성과는 먼저 취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정규직 여부, 전공과 일의 일치 수준, 업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는 초기 노동시장에서 취업 여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집단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하여 선택 편의를 보정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유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게 되고,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한다(황지영, 박재황, 2015; Sampson et al., 2000). 또한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대졸이라는 학력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인적자본, 즉 진로 및 취업 역량을 축적하여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에서 취업의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여부는 OLS 분석에서는 업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PSM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취업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이 임금, 직업만족도 등 취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박소영, 민병철, 2008),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진로에 대한 인식은 진로탐색기(15~24세)를 거치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Super, 1990), 이 시기는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박소영, 민병철(2008) 연구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이 대학진학 과정 또는 직업획득 과정에서 40% 이상이 변화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충분한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대학진학 및 전공 선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학 시기에 새롭게 진로를 탐색하거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대학 시기에도 적절한 진로탐색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경우,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진로결정여부가 취업의 질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은 전공과 직업의 일치 수준에 OLS와 PSM+OLS 분석 결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직업의 일치 수준은 대학 교육

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내용을 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취업 성과인데, 진로준비도에서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이 일과 전공의 일치도 및 일과 교육 수준의 일치 정도에 도움이 된다는 김나영, 우선영(2022)<sup>13)</sup>, 윤지영, 임정연(2020)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PSM을 활용한 분석에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진로준비도 중에서도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 취업의 질적 성과에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서비스의 도움 수준이 높은 경우에 정규직과 정적관계를 나타내고(노경란 외, 2011; 박천수, 2018; 서진영, 박재현, 2019, 신혜숙 외, 2013), 일과 전공의 일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서진영, 박재현, 2019).

진로준비활동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과 서비스 경험 수준이 정규직 여부 또는 전공과 직업의 일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정규 교육 이외에 진로와 취업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이 노동시장 성과를 위한 유의미한 투자로서 작용한다는 인적자본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에 따라 업무 만족도 또는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 또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와는 달리(노경란 외, 2020; 윤지영, 임정연, 2020),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경험 수준은 업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학력이 취업의 중요한 신호 기제로 작용한다는 선별가설이론의 관점에서 4년제 대학이라는 동일한 학력 수준을 가질 경우,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진로준비도의 향상이 취업 성과의 질적 측면인 업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기 진로준비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진로준비도가 모두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진로준비도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학생들의 진로준비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준비 수준은 학생의 청소년기 진로탐색과정과 대학에서의 경험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김봉환, 1997), 대학에 입학한 시기부터 학생의 진로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진로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및 취·창업 과목 수강과 서비스 경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전공과 일의 일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준비도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전공을 살려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13) 김나영 외(2022) 연구의 독립변수는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로 취업 관련 교과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프로그램 중 한 개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할 경우를 참여로 보았으며, 이때 진로·취업관련 교과목 참여 비율이 40.3%로 참여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남.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대부터 대학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개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후 학생의 취업지원과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지표로 사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노경란 외, 2011). 그러나 본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에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높지 않다.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진로발달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이 늘어나고(백원영, 2018; 신광영, 문수연, 2014),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에 대한 도움 정도에 따라서 취업 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 및 취·창업 과목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교육에서의 실질적인 진로탐색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나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진로설계를 통한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을 돕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에서 진로맞춤형 학생중심교육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보다는 대입전략으로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보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진로 결정 시기를 늦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사회로 진입할 때 필요한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 시기에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발달이론을 활용하여 대학생 시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준비도를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사전적 차이를 고려하여 PSM을 활용한 정교한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EEP II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한 학생의 수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성과를 대표하는 임금 변수에 대한 결측 응답이 많아서 이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준비도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취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준비도를 질적인 수준으로 더욱 확장한다면 진로결정 수준이나 진로준비활동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 등 다양한 질적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길혜지, 최윤미(2014). 대졸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3(6), 1-26.
- 김경리(2021).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그것의 구조적 관계. 문화와융합, 43(12), 941-958.
- 김나영, 우선영(2022). 4년제 대졸자의 재학 중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5(3), 25-53.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식, 최영진(2022). 대학생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예측 요인 탐색.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
- 김유빈, 최충(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은, 오영교(2022).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유형과 관련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5(1), 1-40.
- 김지영(2014).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서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학습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7(4), 41-70.
- 김현순(2019).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32(3), 25-41.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 교육학연구, 49(1), 63-92.
- 류지은, 김성남, 안재영, 강서울(2022).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문찬주, 양찬주, 나윤진, 남인혜, 정동욱(2018). 대학생의 취업 준비 시작 시기에 따른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7(3), 27 - 56.
- 문찬주, 한지예(2023). 캡스톤 디자인 수업 경험이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41(1), 193-216.
- 반기운, 김봄이, 남재욱, 최혜란, 김영빈, 김형만(2019). 사회정책과 인적자본 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경호, 권희경, 김정아, 백승주, 최인희, 송승원, 이병식(2019). 2019 한국교육중단연구 - 초기 성인기 생활과 성과(IV).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소영, 민병철(2008).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245-270.
- 박영범(2013).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명(1999). 인적자본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지성, 옥지호(2022). 구직자의 취업스펙이 실제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선별이론 및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13(4), 11 - 24.
- 박천수(2018).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18(4), 51-75.
- 박혜영(2018). 대학생의 개인, 학습경험, 대학환경 및 진로준비도가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에 미



- 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4(3), 55-75.
- 백원영(2018).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사교육 현황 및 첫 일자리 성과. Krivet Issue Brief, 154, 1-4.
- 백일우(2007). 교육경제학. 서울: 학지사
- 서광열(2019). 대학생의 진로탐색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9(4), 95-114.
- 서진영, 박재현(2019). 대학졸업자의 개인특성 및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성과의 관계. 미래교육학연구, 32(1), 21-50.
- 신광영 문수연(2014). 계급,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31-64.
-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3.
- 신혜숙, 남수경, 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유한구, 김영식,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201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수경, 한유경(2014). 대학생의 취업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131-160.
- 윤정이(2020). 진로·취업프로그램이 이공계열 대학졸업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857-878.
- 윤지영, 임정연(2020). 4년제 대졸자의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이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8(4), 181-212.
- 이동규(2016).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의 소개.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11(2), 130-148.
- 이만기(2011). 대학졸업자의 취업준비전략과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성과와의 관계분석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4(2), 73-93.
- 이시균, 양수경(2012).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청년 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84, 222-250.
- 이정민, 김기승(2019).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21(2), 123-146.
- 이필남(2019). 대학생의 졸업 유예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8(3), 1-27.
-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7(2), 207 - 221.
- 정태화, 전중호, 홍광표, 이길순, 이병욱(2009). 직업교육 혁신 202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운서(2018).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학습자 중심 진로준비행동과 학교차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성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53-78.
- 최정윤, 신혜숙(2010).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 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1-154.
-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www.kostat.go.kr>에서 2023.08.20. 인출.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균(2016). 대학 진로·취업 프로그램이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5(4), 47-61.
- 황지영, 박재황(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 Angrist, J. D., & Pischke, J. S. (2009).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own, & L. Brooks(Eds.). (199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197-261.
- Becker, G. S.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Second Edi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Ginzberg, E. (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Occupations*, 30, 491-494.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Sampson Jr, J. P., Peterson, G. W., Reardon, R. C., & Lenz, J. G. (2000). Using readiness assessment to improve career service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2), 146-174.
- Schultz, T. W. (1960).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8(6), 571 - 583.
- Schultz, & Theodore W. (1971). *Education and Productivity*. National Commission on Productivity.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 - 374.
- Super, D. E. (1955). Measuring vocational maturity for counseling and evaluation. *Amer Personnel & Guidance Assn.*
- Super, D. E. (1957).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 Tolbert, E. L. (1983).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 Abstract ❖

### Analysis of the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s

Bomi Lee, Hannah Kim, Kyungeun Park, Choi, Young-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on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s. The career preparation level includes three types (career decision, career/employment course level, and career/employment service experience level) and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s, which means employment and qualitative performances of employment, are analyzed as regular workers, the level of the job-major match,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utilized Logistic Regression and Ordinary Least Square model, using KEEP II, for analysis.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to correct selection bias and strictly estimate effects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will be determined by individu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prepar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in the early labor market. Second, career decisions showed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in the basic regression model, but analysi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employment. Third, career/employment course level has positive effects on the level of the job-major match. Fourth, it was found that career/employment service experience level has positive effects on the status of regular workers and the level of the job-major match.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interest in career preparation during university courses and to provide customized career/employment services for students. Second, the quality of career, career/employment courses, and programs needs to improve, and more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Finally, policy support is needed to ensure a practical career exploration process in secondary education.

**Key words:** Career Preparation Level,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 Propensity Score Matching